

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는 본문이다. 겨우 청소년기의 나이에 기름부음을 받았고, 들관에서 아버지가 맡긴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아 기름부음을 받았다. 13절에 “이 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와 영(성령)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”고 했다. 이후에 다윗을 통해 많은 중요한 일들이 시작된다.

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. 14절 이하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울 왕 앞에 나가 수금을 연주하는데, 악신이 떠나간다(영적 써밋). 돌팔매질 하는 그 능력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을 비롯하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린다(기능 써밋). 그가 쓴 시와 노래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편이 된다(문화 써밋). 그 시간을 통과하며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. 한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된 것이다.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. 한 가문이 가장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다. 행13:22에 “하나님이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”고 했다.

1.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름부음을 받았는가?

- 1) 일단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세 종류의 사명자들이 기름부음을 받았다.
 - ① **직분을 받은 자들이다.** 무슨 중요한 일을 했는가?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두고,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축복하는 일을 했다. 의사가 따로 없었다. 제사장들이 의사였다.
 - ② **본문의 다윗처럼 왕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.**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에 미리 기름부음을 받은 것이다. 왕이 되어 단순히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대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.
 - ③ **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.**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, 미래의 길을 안내해 준 것이다.
- 2) **예수님이 이 세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“기름부음을 받았다”는 뜻의 “그리스도”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.** 우리 인생이 당하는 이해 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세가지 축복을 주신 것이다.
 - ① **그 분이 나의 참 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죄와 실패와 상처투성이인 나를 해방시키고, 치유하시고, 축복하시는 분이 되신 것이다(롬8:1-2, 히4:14-6).**
 - ② **그 분이 나의 참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여러 문제와 고통을 주는 사단의 권세와 먼저 영적 싸움을 하신 것이다.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계속 승리할 수 밖에 없도록 도우시는 것이다(창3:15, 롬16:20)**
 - ③ **그 분이 나의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고, 내 미래를 인도하며,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길이 되어서 신 것이다(요14:6, 잠언3:5-6)**
- 3) **놀라운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“기름부음 받은 자”로 불렀다는 것이다.** 고전1:21-22에 “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,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” 했다. 벰전2:9에 우리를 사단과 싸워 이기고,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다.

2. “기름부음을 받았다”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? 굉장한 언약을 찾아내고 붙잡아야 한다.

- 1) 이미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는 의미이다. 기름을 부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,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. 내가 구원받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(엡1:3, 11). 그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, 구원하시고,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이다(롬8:30). “성령으로 인을 치셨다”(엡1:13), 내 인생이 그 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(소유권). 그래서 그 분이 책임지고, 보호하고, 축복하셔야 하는 것이다.
- 2) **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.**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그 의미다.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, 그리스도의 영이다. 그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, 그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, 교회를 살리고,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.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? 내 힘, 의지, 경험 아니다. 하늘의 권세와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다.
- 3) **이 성령의 능력을 매순간, 모든 문제 사건에서, 지속해서 누리면 된다. 그것을 성령충만이라고 한다.**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이 이것이다. 내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사는 것이다(눅11:13).
 - ① **그때 나의 내면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.** 평안과 담대함과 희망이 생긴다. 그렇게 들었던 언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과 꿈으로, 구체적인 그림으로 온다. 내가 뭘 할지 보이고, 참된 헌신이 시작되는 것이다.
 - ② **내가 하는 학업, 일에 성령이 역사하신다.** 작은 일을 하면서도 지혜가 생기고, 큰 열매로 나타난다. 내가 해놓고 놀라게 된다. 나중에는 남들이 못 보고, 못 가고, 못 하는 일을 하게 된다. 다윗이 경험했던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되고, 증거가 되고, 작품이 되는 것이다.

3. 이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일이 뭐냐? 우리가 영적 써밋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.

- 1) 반드시 나의 기도를 찾아내고, 훈련해서 성령의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. 신자가 영적인 힘이 없다. 무슨 힘인가? 성령 충만에서 오는 힘이다. 이때 다윗은 문제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다(시23:5)
 - ① **다윗의 기도를 배우라.** 양을 치면서도 시와 노래가 기도가 되게 만들었다. 그래서 나온 것이 시편이다. 평상시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이 기도가 되게 만들었다(시19:14). 평상시에 새벽에 일어나(시57:8 “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”), 한 밤중에도 기도를 누린 사람이다(시119:62 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”)
 - ② **정말 어려울 때는 마음을 토하면서 “오직”의 기도를 한 것이다(시62:6-8).** 왕이 된 이후에는 모든 백성, 민족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 기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다(막11:17). 기도의 사람이 되라.
- 2) **기도 속에서 얻은 성령충만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하고, 속이는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고 승리하는 증인이 되라.**
 - ① **다윗은 이미 렘넌트 때에 왕이 고통을 당할 때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. 이 눈부터 열려야 한다.** 그가 수금을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다. 악기를 연주하면서 영적 권세로 영적 싸움을 한 것이다. “내가 연주하는 시간에,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, 내가 일을 할 때에, 내가 머문 이 자리에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”. 영적인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이다.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(마12:28)
 - ② **다윗이 골리앗과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과 많은 대적들과 이 싸움을 하고 승리했다. 이 영적 싸움을 배워야 한다.** 어느날 내가 가진 문제들도 치유되고, 나도 모르게 써밋의 자리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.

결론-모든 성도는 이미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.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기를 축원한다